부산 동련, 천진불 포교 위한 도약 나선다

회장 이 · 취임식 및 부산연꽃문화제 시상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제 7대 회장으로 효산 스님 취임
콘텐츠 개발과 문화 포교로 선두
부산연꽃문화제에서 어린이 격려
어린이포교 후원금 500만원 전달



(사)동련은 5월 27일 부산 여래선원에서 '동련 부산지구 회장 이 · 취임식 및 제37회 부산연꽃문화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단법인 동련 부산지구 신임회장에 효산 스님이 취임했다. 효산 스님은 부산지역 천진불 포교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다.

(사)동련(이사장 신공)은 5월 27일 부산 여래선원에서 '동련 부산지구 회장 이 · 취임식 및 제37회 부산연꽃문화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삼귀의 △한글반야심경 △이임사 △회기 전달 △취임사 △축사 △공로패 전달 △연꽃문화제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사단법인 동련 이사장 신공 스님, 김수현 BTN 불교TV 부산지사장, 정분남 부산포교사단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사)동련의 회기를 전달받은 효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침체되어 있는 어린이 포교에 문화를 통해 새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산 스님은 "사단법인 동련은 찬불가와 여러 법회 프로그램과 온라인 어린이 법회와 어린이 지도자 교육까지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귀감이 되었다"며 "저도 어린이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자비의 수행을 닦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이 되고, 지팡이가 되고, 어깨동무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사장 신공 스님은 신임회장과 전 회장의 공로를 치하하며 어린이 포교를 위해 함께 더욱 노력하고 관심갖기를 당부했다.

신공 스님은 "오랜 기간 동안 부산지구를 이끌며 노력해준 능후 스님께 감사하다"며 "어린이 포교를 위해 새로운 출발을 맡아 주실 효산 스님께도 감사하며 부산의 어린이 포교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희망의 불씨를 심자"고 당부했다.

13년 간 부산지구 회장으로 노력해 온 능후 스님은 "앞으로도 관심을 잊지 않고 마음을 다해 어린이 포교를 위해 노력 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동련 부산지구는 1982년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회로 출발, 초대 정관 스님, 2대 혜총 스님, 3대 철오 스님, 4대 정여 스님, 5대 지현 스님, 6대 능후 스님까지 39년간 어린이포교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사)동련은 어린이 포교 후원금 전달식도 진행했다.

부산불교대상을 수상한 김수현 BTN 불교TV 지사장은 어린이 포교를 위해 사단법인 동련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김수현 지사장은 지난 부산불교연합회가 주최한 부산연등축제 회향식에서 제3회 부산불교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상했으며, 이날 받은 상금을 동련에 회향해 어린이 포교를 응원했다.

제37회 부산연꽃문화제 대상(부산광역시장상)은 글짓기 부문 박영서(연서초 6)와 그리기 부문 황도현(사하초 3) 어린이가 각각 수상했다. 제37회 부산연꽃문화제는 '병원', '감사', '내가 만약 OO이라면'을 주제로 총 451명의 어린이가 참가했으며 32명이 수상했다.

통영시,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에 감사패

반려동물 숲속놀이터 개소 등 정책 협조 · 장소제공 공로 인정


통영시청은 5월 17일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에 '반려동물 숲속놀이터 개소 감사패'를 전달했다.

경남 통영시가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는 경남 최초 통영시 반려동물 놀이터 개소를 위한 장소제공 및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이다. 경남 통영시청(시장 강석주)는 5월 17일 '반려동물 숲속놀이터 개소 감사패 전달식'을 통영시청 제1청사 시장실에서 개최했다.

감사패는 반려동물 놀이터 부지를 위한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았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은 지난 4월 16일 반려동물을 위한 '숲속 놀이터'를 사찰 경내 숲에 개장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개장은 민선 7기 강석주 시장의 공약 사항이었으나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이 보조 사업자로 나서면서 반려동물 놀이터 결실을 보게 됐다.

감사패 전달식에는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 강석주 통영시장, 박경수 통영시청 농축산과장, 이명선 통영지원 실장 등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자용 스님, 교정대상 자비상 수상

2004년부터 교정위원 활동



경남 통영시 두타사 주지 자용 스님〈사진〉이 교정 위원으로 활동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교정대상을 수상했다.

자용 스님은 5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자비상'을 수상했다. 이 시상식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교정공무원과 교정공로자가 참석했다.

자용 스님은 2004년부터 통영구치소에서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6571명의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156회의 법회를 봉행했다. 스님은 마음 다스리는 법,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설명하고 재소자들의 심신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또 교화기자재, 불교서적, 영양 음식 등 약 1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으며 2007년 이후에는 설, 추석 등 명절과 부처님오신날에 약 2500만원 상당의 음식물(떡, 과일 등)을 보시했다. 또 자살우려자에 대한 불교 상담과 불우 수형자 · 고령 수형자에 대한 위로금을 전달하며 격려해오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생명나눔 부산본부 시 · 산문 백일장 시상

5월 29일 수상자 38명에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 이하 생명나눔부산)는 5월 29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9층 문화홀에서 '제13회 생명나눔 시 · 산문 백일장 시상식'을 진행했다.

시상식에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인원을 제한, 대표 수상자 38명 가운데 학생 21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생명나눔부산 본부장 심산 스님, 이경순 생명나눔 이사, 차달숙 한국문학신문 전국총괄본부장, 차정연 부산불교문인협회 협회장, 김미순 부산시인협회 협회장 등 내빈이 동참해 격려했다.

작품 공모는 지난 5월 1일~22일 간 코로나19를 공통 주제로 진행됐으며 중등부는 '어머니', 고등부는 '사진'으로 주제어가 제시됐다.

백일장 작품 공모에는 중등부 82명(금정중 외 7개 학교)과 고등부 39명(해동고 외 7개 학교) 총 121명이 동참했으며 38명이 수상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차명상, '계정혜 삼학' 수행 체계 갖춰"

제9회 칠불사 선차 학술발표회

김유리 박사, 불교수행적 고찰
하동군, 세계 차엑스포 추진도


칠불사는 5월21일 경내 선다원에서 제9회 칠불사 선차 학술 발표회를 개최했다.

차명상이 '계정혜 삼학'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칠불사(주지 도응)가 5월 21일 경내 선다원에서 개최한 제9회 칠불사 선차 학술 발표회에서 김유리 동국대 박사는 '차명상의 불교수행론적 이해' 주제발표에서 차명상을 통한 효과에 주목했다.

김유리 박사는 "차를 마시면서 마음의 안정과 고요함을 갖는 행위는 계 · 정 · 혜 삼학 수행이 가능하도록 돕는다"며 "특히 차를 다루는 다도는 절제와 계행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상대에 대한 배려를 통해 사랑과 연민의 마음(慈悲心)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고 하는 물질은 오온(五蘊)의 색(色)이 지니는 특성처럼 사대(四大)로 이루어진다. 사대는 정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이 라고 볼 수 있는 사마타(samatha)와 위빠사나(vipasanā) 수행에 모두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차 학술 발표회는 하동차의 역사 및 문화 가치를 확인하고 차문화의 계승과 선차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개최됐다. 특히 하동군에서 내년에 개최할 '세계차엑스포'의 가치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칠불사 도응 스님, 윤상기 하동군수, 박성곤 하동군의회의장, 동국대학교불교문화원 정도 스님, 차문화콘텐츠학과 혜명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1부 개회식과 2부 학술발표회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도응 스님은 "하동 야생차는 UN 식량농업기구로부터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인증받았다"며 "하동군은 내년에 세계차엑스포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지역사찰로서 깊이 축하드리며 전국 차인들과 불자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snakdu@hanmail.net

(주)덕양가스, 정토사에 소방차 기증

6월 2일 소방훈련도 진행


울산 정토사는 6월 2일 소화장비 기증식 및 소방훈련을 대웅전 전 앞 마당에서 진행했다.

(주)덕양가스가 울산 정토사의 화재 예방을 위해 최신 소화 장비인 삼륜소방차를 기증했다.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는 6월 2일 소화장비 기증식 및 소방훈련을 대웅전 전 앞 마당에서 진행했다.

(주)덕양가스는 이날 삼륜소방차(3000만 원 상당)을 기증하고 사찰 화재 예방과 신도들의 안전을 기원했다.

기증식에는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과 이치윤 (주)덕양가스 회장 및 개발업체인 덕양에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증식은 경과보고 및 차량 설명 안내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치윤 회장의 인사말 및 주지 덕진 스님의 감사인사 등이 진행됐다. 이어 작동 시연회 및 소방 훈련도 실시됐다.

이치윤 회장은 "정토사는 선친이 다니시던 절이고 최근에 선친의 49재를 모신 인연이 깊은 사찰이다"며 "목조건물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 선친을 모신 감사함을 담아 화재 예방에 도움드리기 위해 기증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